

게일(J.S.Gale)의 『턴로력당』은 어떤 자료인가?

이승재(학예연구사)

- I. 들어가는 말
- II. 『턴로력당』의 번역과 출간
- III. 『턴로력당』의 구성과 내용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게일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초기 선교사들보다 3년 정도 늦은 1888년 조선에 들어왔다. 그러나 누구보다 조선과 조선인, 그리고 조선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처음 조선에 들어올 당시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정식 교단 선교사로서 파송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과 상황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게일은 선교 초기부터 나름의 선교적 소신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누이 Jenny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선교에 대한 소신이 담겨있다. 게일은 “조선에 전하는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가 아니라 조선화 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선교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며,¹⁾ 그의 이러한 소신은 그가 조선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게일은 다양한 조선의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하고 또한 서양의 작품들을 한글이나 한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문화를 전하고 기독교적 사상을 조선인들에 이해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본 글에서는 게일의 번역작품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턴로력당』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와 함께 그의 조선인에 대한 선교적 소신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턴로력당』은 존 번연의 Pilgrim's Progress를 최초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일은 이 작품을 순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는데 조선화된 기독교를 표방하였던 그의 소신답게 곳곳의 표현에서 조선화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삽입된 그림의 모습에서도 그의 이러한 선교적 소신을 확인

1) 유영식, 『착한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202.

할 수 있다.

II. 『턴로력당』의 번역과 출간

잘 알려져 있다시피 『턴로력당』은 1678년 발간된 존 번연(John Bunyan)의 작품 “Pilgrim’s Progress”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존 번연은 17세기에 활약한 침례교 목사이자 저술가로 그의 대표작인 “Pilgrim’s Progress”는 영미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인기가 많고 유명한 작품이다. 초창기 국내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주로 북 장로교의 청교도적인 신앙전통 아래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성경적인 원리에 기반한 경건한 신앙과 절제된 생활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며,²⁾ 이러한 신앙관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영성과 영적 순례의 길을 가르치는 “Pilgrim’s Progress”의 내용을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Pilgrim’s Progress”를 번역하여 초기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소개하고 이를 교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선교사들 중 가장 먼저 “Pilgrim’s Progress”를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고자 한 사람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사역과 언더우드 학당, 성경번역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는 바쁜 상황에 있었으므로 번역에 착수할 수 없었고 1888년 조선에 입국한 게일(James. S. Gale)에게 그 작업을 부탁한다.³⁾ 그렇게 시작한 “Pilgrim’s Progress”의 번역은 게일과 그의 아내 해리엇 깁슨(Harriet E. Gibson)의 공동번역과⁴⁾ 이창직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어 1895년 초판이 출간된다.⁵⁾ 초판 『턴로력당』은 영문자료 “Pilgrim’s Progress”와 함께 중국 선교사 번즈(William C. Burns)가 출간한 중국판 『天路歷程』을 함께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턴로력당’이라는 서명도 중국판 번역작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⁶⁾ 초판 『턴로력당』은 목판본과 연활자본의 두 가

2) 조경현, “한국 초기 미 북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의 뿌리,” 『교회사학』 제6권 제1호(2007. 1): 214-219.

3) 유영식, 『착한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1권(서울: 도서출판 진흥, 2013).

4) 『턴로력당』의 번역은 게일과 해리엇 깁슨이 결혼하기 전 각자 상당 부분을 번역하였고 이를 게일이 취합하여 이창직과 함께 마무리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895년 발간된 초판본의 속표지(영문표지)에 “Translated by Mr. and Mrs. Jas. S. Gale”로 게일과 깁슨의 공동번역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1896년 발간된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에도 공동번역으로 소개하고 있다.

5) 게일의 조사이자 동료로 활동했던 이창직은 실질적으로 1895년의 초판 발행 시부터 참여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1910년의 재판에서부터 이름이 확인된다. 1910년 출간된 재판(再版)의 본문 첫 장에는 “목스 기일 번역”과 함께 “스인 리창직 교열”이 기재되어 있다.

6) 『턴로력당』의 초기 번역은 국문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중국 선교사 번즈의 『天路歷程』을 저본으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바 있는데 번즈의 작품 중 문언(文言)역 『天路歷程』(1853년 초판 발행)과 관화(官話)역 『天路歷程官話』(1865년 초판 발행)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김동언, 『턴로력당과 개화기 국어』(서울: 한국문화사, 1998).; 박기신, “턴로력당 이본의 국어학적 연구,”(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조영인, “천로역정 이본 간의 표기양상 연구,”(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2006).;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제31권(2009): 199-227.

지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목판본은 상·하 두 책으로 분책되어 출간되었고 연활자 본은 분책되지 않고 한 권으로 출간되었다.⁷⁾ 두 판본 중 어느 것이 먼저 출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큰 차이점은 목판본에 삽화가 있는 반면 연활자 본에는 삽화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목판본 『턴로력당』은 전통적인 고서 제작 방식으로 제작·출간되었으며, 영문과 한글로 된 속표지가 있어 출간 연도와 출판사향을 확인할 수 있다.⁸⁾

목판본 『턴로력당』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42점의 삽화를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삽화는 당시의 유명한 풍속화가인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그렸다.⁹⁾ 기산 김준근은 주로 1880년대에서 1890년대까지 원산, 부산, 인천 등 개



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풍속화가로 조선의 풍경과 인물을 위주로 하는 상업적 회화를 주로 그렸다.¹⁰⁾ 그의 작품은 외국인의 시각과 요구에 부합하여 그렸기 때문에 특히 개항장에 출입하였던 선교사나 공사관 등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다수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¹¹⁾ 김준근은 주로 조선의 민속과 풍속, 놀이, 일상의례, 생활 등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고 종교적인 그림도 다수 남겼는데 전통종교인 불교나 무속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다수 확인된다. 현재 남아있는 그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독교적 색채를

7) 목판본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도서관, 배재중고교 박물관, 예장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이외 개인소장본 등이 있으며, 연활자 본은 송실대 박물관에 1점이 있다.
 8) 초판본 『턴로력당』의 서지사항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연, “턴로력당의 서지적 고찰,” 『한남어문학』제20권(1995): 26-63.; 김동연, 『턴로력당과 개화기 국어』(서울:한국문화사, 1998).
 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천로역정(합질)(天路歷程),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일의 『턴로력당』 초판본은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제685호(등록 2017.5.29.)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10) 김준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산풍속도의 대량생산을 위해 일종의 공방체제를 운영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박효은, “턴로력당 삽도와 기산풍속도,” 『송실사학』제21권(2005): 179-180.
 11) 김준근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총 약 1,400여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동베를린미술관, 프랑스 국립귀메박물관, 덴마크 국립코펜하겐박물관, 러시아 국립모스크바박물관, 오스트리아 비엔나박물관, 캐나다 온타리오박물관,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영국 도서관 등 유럽과 북미에서 다수 확인된다. 하인리히 F.J.융거 지음, 이영석 역, 『기산 한국의 옛 그림』(서울:민속원, 2003).; 정형호,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타난 민속적 특징,” 『중앙민속학』제13권(2008): 179-224.

떠는 그림은 『턴로력당』의 삽도 이외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게일과 함께 『턴로력당』의 삽화를 그리면서 기독교적인 그림을 처음 그렸던 것으로 생각되며 기독교 복음도 이때 접한 것으로 보인다.¹²⁾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조선의 문화를 담은 기독교 삽도를 그리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때 이미 1880년대부터 개항장에서 풍속화를 그리며 서양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김준근에게 게일이 먼저 『턴로력당』의 삽도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게일이 조선의 풍속화만을 그려왔던 조선인 화가에게 삽도를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풍의 삽도는 게일에 의해 착안되고 주도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준근의 풍속화는 1876년에 출간된 영어본 “The Pilgrim’s Progress(Robert Maguire)”의 삽도를 저본으로 그린 것으로 확인되는데¹³⁾ 게일이 제공한 영어본의 삽도를 토대로 김준근이 조선의 문화를 담은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삽입된 42점의 그림은 조선의 문화와 종교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창작되어 일반에 널리 읽혔으며, 송실학당 등 기독교학교의 교재로 활용되면서 당시 학생들이 『턴로력당』의 내용과 상황을 좀 더 친근하고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는 『턴로력당』을 성경교재로 사용한 송실학당의 교과편성표 및 과목당 시간표이다. 담당 교수는 스왈른(William L. Swallen)과 마펫(Samuel A. Moffett)이 담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당 시간은 2시간 정도 배당되었다.¹⁴⁾

교과	내 용		교과내용			
	신구약	천로역정	기독교문학	.	.	
성경	신구약	천로역정	기독교문학	.	.	
어문학	조선어문법	한문	중근근대서적	사서	서예	
수학	산수	대수	평면기하	.	.	
과학	자연과학	기초물리	화학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위생학	자연,인문지리	지도그리기	천문학	
역사	세계사 (만국역사)	동양사	서양사	특수사	.	
음악	가창	음악이론	.	.	.	
미술	회화	
체육	체조	

[표 5] 평양 송실학당 교과목 편성내용(1901)

12) 김준근이 『턴로력당』의 삽화를 그린 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박정세, “게일(J. Gale)의 턴로력당과 김준근의 풍속삽도,” 『신학논단』 제60권(2010): 70.

13) 박정세, “번연(J.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삽화와 그 변천,” 『미술사문화비평』 제3권(2012): 145-149.

14) 송실대학교90년사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90년사』(서울:송실대학교출판부,1987), 79.

강사명	담당과목	주당시간
Mrs. W.B. Hunt	음악·수학	1·3
Dr. J.H Wells	위생학	2
Mr. Blair	미술·체조	1·수시
Mrs. Blair	음악	1
Miss. Howell	음악	1
Mrs. A.A. Baird	식물학	1
Mr. Swallen	성경·천로역정	2·2
Dr S. A. Moffett	성경·천로역정	2·2
Mr. Bernheisel	지리·산수	1·1

[표 6] 평양 숭실학당의 강사 및 과목당 시간(1901)

Ⅲ. 『턴로력당』의 구성과 내용

『턴로력당』의 원자료인 “Pilgrim’ s Progress” 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총 두 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크리스천의 여정,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과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내외 면의 적들과 싸우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모험 형식으로 묘사한 것이다. 세부 구성은 주인공이 겪는 순례의 경험과 여정에 따라 각각 1부 10개, 2부 8개의 소단원(Stage)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일이 번역하여 출간한 『턴로력당』은 이상의 두 가지 스토리 중 1부 “크리스천의 여정” 만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¹⁵⁾ 게일의 『턴로력당』은 영문판인 “Pilgrim’ s Progress” 와 다르게 본문의 내용이 소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이야기를 길게 연결한 만연체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초기 한글자료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아직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통일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원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내용의 전개는 원작과 동일하며, 주요한 이야기의 중간에는 삽도를 넣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턴로력당』의 삽도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로버트 맥과이어(Robert Maguire)목사가 주석을 달아 출간한 1876년 본 “Pilgrim’ s Progress” 의 삽도를 참고하여 그렸으며, 장면에 따라 인물묘사 등을 부분적으로 누락시켜 전체 58장 중 42장이 본문에 담겼다.

게일이 저술한 『턴로력당』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을 염두에 두고 번역·출간한 자료이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로역정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사용된 용어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종교적 인식의 틀 안에서 사용되어

15) 1895년에 출간된 『턴로력당』은 1부 크리스천의 여정을 다룬 것인데 상·하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10년에 출간된 재판은 글씨의 크기를 줄여 1권에 상·하 모두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초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턴로력당』의 본문 내에서 확인되는 토착적인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번역과정에서 사용한 동양 또는 조선의 문화와 종교적 인식을 담은 표현과 단어이다. 게일이 『턴로력당』의 번역과 출간을 준비하던 1890년대 초는 개인역본을 넘어서 성서번역자회를 통한 공적 성서번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아직 공인된 신약전서가 발간되지 않았던 시기로 번역을 위한 단어나 표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¹⁶⁾ 특히 한문 성경의 상제(上帝)나 천주교의 천주(天主)에 대비되는 개신교의 용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시기 선교사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하느님, 상제, 텡쥬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다.¹⁷⁾ 그런 가운데 게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주장한 선교사였으며, 그의 주도하에 1895년 발간된 『턴로력당』에도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⁸⁾ 한편 『턴로력당』은 원작의 기술방식을 따라 등장하는 인물이나 장소 등 명칭 대부분을 가상의 의미를 담은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어(造語)와 기본적인 용어에서 문화적, 종교적인 인식을 내포하는 단어의 사용이 확인된다.

두 번째는 목판본 『턴로력당』과 재판 및 그 이후의 판본에 사용된 조선의 문화와 종교적 인식을 담은 삽도의 사용이다. 삽도는 총 42점으로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 주요 장면을 그려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본인 로버트 맥과이어(Robert Maguire)목사의 주석본에는 스토리의 진행에 맞추어 총 58장의 삽도가 삽입되어 있는데 두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해 본 결과 주요장면 이외의 세부인물 그림 등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삽도에는 원근법의 사용 등 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확인되는데 조선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색다른 느낌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턴로력당』의 삽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로버트 맥과이어(Robert Maguire)목사의 주석본에 삽입된 셀로스와 프리올로(Selous & M. Paolo Priolo) 삽화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⁹⁾ 아마도 게일이 영문본의 삽도를 김준근에게 제공하며 비슷한 구도로 삽도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따라 인물의 자세와 장면의 묘사,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 등은 저본의 삽도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저본으로 사용된 셀로스와 프리올로(Selous & M. Paolo Priolo) 삽화와 『턴로력당』의 삽도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인데 살펴보면 이러한 유사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

16) 첫 신약전서인 로스 본은 1887년 만주 선양에서 이미 출간되었으나 평안도 방언과 속어 등이 많아 가독성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신약성경의 번역이 추진되었으며, 성서번역자회에 의해 1906년 공인된 신약전서가 출간되었다. 옥성득, 『초대 한국교회사』, 391.; 류대영, 『한권으로 읽는 한국기독교의 역사』(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17) 옥성득, 『한국기독교형성사』, 128-129.

18) 초기 한국교회의 하느님 논쟁에 대해서는 위의 책 옥성득, 『한국기독교형성사』를 참조할 것.

19) 박효은, “턴로력당 삽도와 기산풍속도,” 『송실사학』제21권(2008): 171-212. ; 박정세, “번연(J.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삽화와 그 변천,” 『미술사문화비평』제3권(2012. 12):131-160.

<p>[그림7] 기독교도가 우올니에 빠졌는데 은조가 구원하다</p>	<p>[그림8] 기독교도가 길을 잃었는데 전도가 다시 가르치다</p>		
<p>[그림9] 기독교도가 좁은문에 다다르니 인자가 열어주다</p>	<p>[그림10] 효사가 방 쓰는데 물뿌리는 이치로 기독교도를 가르치다</p>		
<p>[그림11] 기독교도가 담 넘어오는 사람을 개유하다</p>	<p>[그림12] 기독교도가 미궁에 다다르다</p>		

다.

게일의 『턴로력정』에서 삽도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2점의 삽도는 모두 중요한 장면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삽도에는 그림과 함께 삽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턴로력정』 본문에 삽입된 삽도의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설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도가 전도로부터 도를 받은 후 집을 떠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구간마다 삽도와 설명을 촘촘하게 제시

하고 있다. 1895년에 출간된 『턴로력당』 목판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량이 많아 내용을 두 책으로 분책하였는데 앞의 책에는 26번 삽도 ‘평론촌’ 까지, 뒤의 책에는 기독교와 진총이 전도를 다시 만나는 장면(삽도27)부터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삽도42)까지 16장의 삽도가 삽입되어 있다. 본문의 전체 분량이 202장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본문 5장당 1면씩 삽도가 삽입되어 있는 것인데 그만큼 삽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서	『턴로력당』 삽도의 주제 설명	삽입위치
1	기독교도가 던도의게 도를밧다	P2
2	기독교도가 집을 썬나다	P4
3	기독교도가 이천을 다리고 고집을 리별한다	P6
4	기독교도가 우울니에 싸젓는디 은조가 구원한다	P9
5	세지가 기독교도를 썬이다	P12
6	기독교도가 길을 일헛는디 전도가 다시 마르치다	P15
7	기독교도가 좁은문에 다다르나 인즈가 열어주다	P21
8	인즈가 기독교도를 턴성길 마르치다	P23
9	효시가 방쓰는디 물뿌리는 리치로 기독교도를 마르치다	P27
10	효시가 급흔 욕심과 복을 기다리는 일로 기독교도를 마르치다	P29
11	효시가 물로 불을 끄고 기쁨으로 불을 닐게함으로 기독교도를 마르치다	P32
12	기독교도 십즈가에 다다르 죄짐을 벗스니 턴스가 흰옷을 낚히다	P38
13	기독교도가 담넘어오는 사름을 기유한다	P40
14	기독교도가 회의와 심경의 말을 듯지안타	P45
15	기독교도가 일헛든 표지를 도로차젓다	P47
16	기독교도가 스즈잇는디를 지나다	P48
17	기독교도가 미궁에 드다룻다	P52
18	기독교도가 미궁에 드러가다	P55
19	기독교도가 갑옷을낚다	P60
20	기독교도가 아파룬과 싸호다	P63
21	기독교도가 악귀를 만나기도한다	P69
22	기독교도가 음예를 썬나니 히빃치 빃최다	P72
23	기독교도가 턴쥬교황을 지나가다	P74
24	진총이 기독교도를 구원한다	P76
25	로아담(늙은 아담)이 진총을 썬이다	P85
26	평론촌	P91

27	기독교 진흥이 전도를 다시 맞나다	P103
28	허화시	P105
29	기독교 진흥이 허화시에서 잡혀가다	P108
30	진흥이 해를 맞다	P116
31	기독교 미도가 라독의 처 소금기둥된 거슬보다	P129
32	싱명강	P133
33	기독교 미도가 절망의 옥에 가치다	P137
34	기독교 미도 옥에서 도망한다	P143
35	기독교 미도 이단산에서 느려다 보다	P146
36	턴성을 바라보다	P149
37	무지를 맞나다	P151
38	광명훈 사름이 기독교와 미도를 구물에서 구원한다	P162
39	미도가 미기에서 조을다	P167
40	턴스를 맞나다	P193
41	스하를 건너다	P195
42	턴국에 들어가다	P199

[표 8] 『턴로력당』 삽도의 주제들

이렇듯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는 『턴로력당』의 삽도는 이야기에 사실감과 입체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내용을 삽도의 이미지 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통해 이야기를 매우 조선적인 모습의 이야기로 탈바꿈 시킨다. 묘사된 인물들은 대체로 사실적인 형태로 조선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친근감을 갖도록 만드는 장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인공인 ‘기독교’는 조선시대 복식의 관점에서 볼 때 상민의 복장을 하고 있다. 상의는 소매가 좁고 단이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어 하의가 드러나며, 다리에는 장거리 여행 시 활동을 편하게 해주는 행진을 차고 짚신을 신었다. 반면에 [그림8]의 ‘전도’는 소매가 넓고 단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도포를 입고 가슴에는 술띠를 매고 있어 양반의 모습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신분의 차이를 설정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는 여성과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데 ‘기독교’의 가족은 상민의 모습으로(그림13), 미궁의 여인들은 신분이 높은 여성의 복식(그림14)을 하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턴로력당』의 삽도는 단순히 내용의 이해를 넘어서 신분상의 특징 등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해하고 이야기의 전개에 따른 ‘기독교’의 변화를 수궁하며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²⁰⁾

20) 기독교의 복식은 『턴로력당』의 이야기 전개에 따라 5단계의 신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삽도에 나타난 공간적 배경은 저본과 매우 닮아 있는데 김준근은 저본의 삽도와 되도록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9]와 [그림11]의 좁은 문과 담장 모습은 전체적인 구도와 형태에서는 저본의 삽도와 유사한데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다. 조선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이나 담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다소 이질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멀리 보이는 산세는 동양적 느낌을 주도록 그려져 있다. [그림12]에서 기독교도가 도착한 미궁의 모습은 저본의 삽도와 위치 및 기둥의 형태 등이 비슷한데 지붕의 형태는 조선의 기와집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김준근은 저본의 삽도에 나타나는 스토리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조선적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일의 저작 『턴로력당』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과 남녀 두발의 형태, 기물, 공간의 표현 등 대부분의 모습에서 조선의 문화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제일의 『턴로력당』을 접하는 이들에게 다분히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조선사람의 이야기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시의 조선인 독자나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은 조선인의 모습과 배경을 담은 『턴로력당』의 삽도를 보면서 서양이 아닌 조선인의 스토리를 읽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턴로력당』에 수록된 삽도의 또 다른 특징은 삽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종교적 인식의 틀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까지 조선인들은 유불선 삼교와 무속적인 종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오랜 기간 조선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해온 것은 고유의 샤머니즘과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무속과 선교(仙敎),²¹⁾ 중국에서 전래한 도교(道敎)²²⁾,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

박효은, “‘턴로력당’ 插圖와 箕山風俗圖,” 『송실사학』 제21권(2008): 171-21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네 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① 처음 출발해서 미궁에 들어갈 때까지 입었던 저고리에 행전을 차고 갓을 쓴 모습. ② 미궁에서 입은 갑옷. ③ 평론촌을 지나 진충을 다시 만날 때 변화된 갑옷. ④ 마지막으로 천국에 입성한 후의 모습이다.

21) 조선민족의 원시종교를 신도(神道)와 선교(仙敎)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능화, 『조선도교사』(이종은 역, 보성문화사, 1986), 53.

22) 후한시대 축의 장도릉이 오두미교로 창시하였으며, 위백양, 갈홍을 거쳐 북위의 구검지에 의해 교단을 갖춘 도교로 집대성 되었다. 노자의 도덕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경전화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말엽에 유입된다. 이공훈, “儒佛仙三敎合一思想과 道敎와의 關係 및 道敎敎團의 社會

지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불교, 그리고 고려 후기부터 조선의 전 기간에 걸쳐 지배계층인 사대부들이 신봉한 유교 등 이었다. 이들 유불선 삼교와 무속신앙은 각각 한반도에서 번성한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습합(習合)되어 조선인의 의식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툰로력덩』에 삽입된 삽도 가운데는 이러한 조선인의 종교적 인식을 고려한 묘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속과 도교 및 불교적 전통과 관련된 것들이다. 다음은 『툰로력덩』의 삽도 중 종교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삽도들을 모아 보았다. 이상의 삽도들을 살펴보면, [그림15], [그림17]에는 각각 여자와 남자로 구성된 하늘을 나는 인물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본문에서 [그림15]의 공중에 있는 존재는 “빛나고 거룩하신이 세분”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그림17]의 모습에서 삽도 왼쪽 상단의 구름위에 있는 존재는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진충’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툰스’이다. [그림15]와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과 달리 빛나고 거룩한 존재가 기독교의 양쪽에 두 명만 등장하는 것은 삽도를 그린 김준근이 구도를 위해 한 명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 다 여자의 모습이며, 머리는 곱게 빗어 부용관(芙蓉冠)²³을 쓰고 몸에는 불교의 비천(飛天)²⁴이나 도교의 비선(飛仙)들이 걸치는 표대(飄帶)²⁵를 두른 풍성한 천의를 입고 공중에 떠서 기독교의 의관을 벗기려는 모습이다. [그림17]에는 머리에 상투관²⁶을 쓰고 몸에는 심의(深衣)²⁷를 걸친 인물이 구름 위에서 ‘진충’을 내려다보고 있다. 각각의 삽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천사와 하늘의 존재들을 나타낸 것인데 조선인 독자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습 즉 전통종교인 불교나 도교에서 표

的 役割.”『도교학연구』제17권(2001): 163-201.

23) 화관(花冠)의 일종으로 궁궐의 연회나 사대부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장신구로 신선도에서 여성이 주로 쓰는 장신구로 등장한다.

24) 비천은 천인이라고도 하며 그 기원을 고대 인도신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 서역과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 5세기 대부터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신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나 천계에 살고 하늘을 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정진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飛天像 研究”(미간행 문학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5).; 정수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人像 研究-飛天像과 飛仙像을 중심으로.”(미간행 문학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1).

25) 박대(薄待)라고도 한다. 비천(飛天)이나 비선(飛仙)의 몸에 감겨있는 긴 띠 모양의 날개옷으로 비천과 비선의 형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정진희, “정진희의 사찰미술여행 14. 고구려의 비천상.”『법보신문』 2017년 7월 25일자.

26)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상투를 정돈하기 위해 머리 위에 씌운 관.

27)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입던 겹옷.

[그림15]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그림20]

현하는 방식의 비선이나 신선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6]에는 ‘미궁(美宮)’에서 기독도를 맞이하는 세 명의 여인 ‘현지(賢智)’, ‘경건(敬虔)’, ‘인애(仁愛)’가 등장한다. 이들은 기독도와 대화의 통해 기독도가 순례에 대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다. 그 중 삼도 왼쪽 끝에서 기독도를 안내하는 여인은 머리에 부용관을 쓰고 몸에는 몽두리(蒙頭里)²⁸⁾를 입고 있는데 도교나 무속에서 등장하는 복색을 연상시킨다.²⁹⁾ 아마도 인물의 평범하지 않은 신분을 드러내고자 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독자들의 전통적인 인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8]과 [그림19]는 기독도와 미도가 “금빛옷을 입고 얼굴이 빛난이”라고 묘사된 천사들을 만나 천성(天城)에 대하여 듣는 장면과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 ‘스하(死河)’를 건너는 장면을 그린 삽도이다. 두 삽도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조복(朝服)을 입

28) 조선시대 여기(女妓:여자기생)나 무속인이 입던 옷.

29) 유영식은『착훈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에서 여성 천사들의 머리에 쓴 관을 일반 부녀자들이 썼던 족두리로 기술한 바 있는데 삽도를 자세히 보면 윗부분이 뚫려있는 상광하협(上廣下狹)형의 사각 모양 주변에 꽃을 장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위에도 장식을 한 족두리의 형태와는 구별된다.[그림25]를 참조할 것. 유영식,『착훈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서울:도서출판 진흥, 2013), 247.

고 머리에는 상투관과 원유관(遠遊冠)³⁰⁾을 썼으며 등 뒤에는 광배(光背)³¹⁾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20]은 기독교와 미도가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천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천성의 모습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선계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앞의 삽도에서 등장하는 심의에 상투관을 쓴 인물, 조복에 원유관을 쓴 관리의 모습, 부용관을 쓰고 표대를 두른 선녀 등이 모두 함께 등장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피리부는 동자 등의 모습인데 선계를 그리는 동양의 신선도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의 전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표현과 묘사는 전체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천성을 도교의 신선세계로 이미지화하고 상상하도록 하며, 이것은 이미 조선인들이 알고 있던 천상세계를 기독교의 천국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턴로력덩』은 용어의 사용에서 삽도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선의 문화적 및 종교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인식하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보다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턴로력덩』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된다. 즉 하나님과 천사, 천상의 존재들을 전통적인 이미지와 연결하여 나타냄으로써 조선인 학생들이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하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하고, 기독교의 모험과 여정을 “하늘나라로 가는 영적순례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턴로력덩』을 번역하여 출간한 게일은 평소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가 아니라 조선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³²⁾ 이것을 달리 말하면 기독교 교육은 서구의 것을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손에 의하여 조선의 문화와 사람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뿌리내려야 하며, 이것을 위해 현지의 문화적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의 이러한 생각이 『턴로력덩』의 번역과 출간에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는 말

이상 게일(J. S. Gale)이 1895년 번역 출간한 『턴로력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게일은 그의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 조선의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고자 하였으며, 조선인들에게 조선화된 표현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가 이미 선교초기부터 조선에서 현지화된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30) 임금이 조하(朝賀)에 나올 때 쓰는 관.

31) 인물의 위엄을 형상화하기 위해 표현된 후광.

32) 유영식, 『착훈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202.

개화기의 조선과 조선인은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일 등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이 더욱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상에 나온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게일의 『툰로력덩』이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게일의 『툰로력덩』은 다양한 조선화된 표현을 가미하고 조선인과 조선의 산수를 표현한 삽도를 삽입함으로써 조선인들이 하나의 조선화된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선교초기 기독교 복음이 조선에 정착하는데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게일이 그의 평생에 노력하였던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선화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능화, 『조선도교사』(이종은 역, 보성문화사, 1986).
- 승실대학교90년사편찬위원회, 『승실대학교90년사』(서울:승실대학교출판부, 1987).
- 김동언, 『턴로력덩과 개화기 국어』(서울:한국문화사, 1998).
- 하인리히 F.J. 융거 지음, 이영석 역, 『기산 한국의 옛그림』(서울:민속원, 2003).
- 유영식, 『착흔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1권(서울:도서출판 진흥, 2013).
- 류대영, 『한권으로 읽는 한국기독교의 역사』(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 옥성득, 『초대 한국교회사』(서울:새물결플러스, 2020).
- 정진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飛天像 研究”(미간행 문학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5).
- 정수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人像 研究-飛天像과 飛仙像을 중심으로,”(미간행 문학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1).
- 박기선, “턴로력덩 이본의 국어학적 연구,”(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 조영인, “천로역정 이본 간의 표기양상 연구,”(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2006).
- 김동언, “턴로력덩의 서지적 고찰,” 『한남어문학』제20권(1995).
- 이공훈, “儒佛仙三敎合一思想과 道敎와의 關係 및 道敎敎團의 社會的 役割,” 『도교학연구』제17권(2001).
- 조경현, “한국 초기 미 북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의 뿌리,” 『교회사학』제6권 제1(2007. 1).
- 박효은, “턴로력덩 삽도와 기산풍속도,” 『승실사학』제21권(2008).
- 정형호,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타난 민속적 특징,” 『중앙민속학』제13권(2008)
-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제31권(2009).
- 박정세, “게일(J.Gale)의 턴로력덩과 김준근의 풍속삽도,” 『신학논단』제60권(2010).
- 박정세, “번연(J.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삽화와 그 변천,” 『미술사문화비평』제3권(2012).